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

■ 노 대통령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참석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해마다 대통령이 행정각부 장관들로부터 연두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부처별로 무슨 일 무슨 일하겠다는 1년 계획을 보고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행정의 수요자 중심의 보고회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는 노인정책에 관련된 9계부처 책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 중심별로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책만 관련해 보고하는 새로운 형태이지요.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보고이니만큼 저도 보고를 받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보고를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선 국민이 주인이니깐요.

오늘 시간배정을 보니까 보고가 15분이고 토론이 30분, 대통령 발언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분량으로 봐서 15분만에 보고를 다하자면 보고가 아주

빠르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를 받아본 경험으로 보면 난 업무를 잘 알아도 빠르게 읽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일반 국민들이 오셨기 때문에 15분 만에 보고를 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토론시간을 좀 줄이거나 제가 말하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천천히 국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서 멀리서들 오셨고 또 오늘 보고회 참석자들을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극히 일부부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찬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 노 대통령 마무리발언

오늘 저는 국회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점 법안 세 가지가 이제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고, 그걸 전제로 해서 팸플릿도 만들고 오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저는 원체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고 또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법안이라서 조금 늦긴 했지만 통과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하고 또 대화하는 데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지요? 또 혹시 불안하시면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통과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늘려...수혜자 대부분 노인계층

오늘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습시다만, 보고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은 많지 않은 간에 암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순환기 계통의 질환으로 결국 행동이 부자유

스러워져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까지 매달려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부담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과 가족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부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덜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관점에서 건강보험 분야에서 그 부분의 대책을 좀 더 마련했습니다.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그동안 노후 복지까지 준비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주 엄청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회적 부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이 300만원을 넘어갔을 때 이미 그 가정이 빚을 내야 되고, 빚내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집이 있으면 집을 담보로 해야 되고 또 전세도 담보로 넣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이자, 그것도 급전을 내는 수도 있고 한테, 그건 높은 이자가 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소위 채무의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300만원이 넘는 의료비, 아주 중증 질병에 관해서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다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도를 재편했는데, 그것은 결국 그 수혜자가 대부분 노인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면 그 가족들이 뭐 좀 한숨, 허리를 펼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대상자는 노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 상한을 우리 복지부장관 얘기를 들으니깐 200만원 수준으로 다시, 2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보험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건강을 뒷받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고요.

“노인들의 모습이 달라질 때 선진국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고는 잘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도 그러면서도 마음이 좀 답답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되고 나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는데, 길거리를 구경 다닐 시간은 없습니다. 차를 타고 잠시 잠시 다녀보지만 어느 나라 어느 위치에 가도 젊고 건강한 사람이 활기차게 걷고 일하고 움직이는데 한국만큼, 한국의 거리만큼 더 활력 있고 활기찬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한국의 길거리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거리니까, 국민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3만불 한다 우리는 1만8000불이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지.

그런데 올해 보니까 결국 젊은 사람들이 돈 벌어서 뭐 하고 또 소비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선진국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는데요, 자동차도 좋은 것 타고... 노인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선진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의 모습과 우리 한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은 모습이 다릅니다. 제가 구구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우리 노인들의 모습이 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에 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게 정부 역할”

이제 원칙적으로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이런 이론이 있지요. 모든 것은 본인이 노력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책임으로 해야지 국가가 너무 많은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나태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부담을 주는 국

민이 돼 가지고 그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지나친 보호는 사람들의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시키고 그렇게 해서 의타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국가 사회에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어느 수준이냐가 문제인데, 복지비용이라고 할 만큼 지나친 지원을 하게 됐을 때 그와 같은 사회적 병폐가 생기는 반면에 우리가 사회적 구조가 너무 없어서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가지고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공부에서도 도저히 친구와 나란히 학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같이 갈 수 없고, 중학교·고등학교에서도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어서 차츰차츰 희망을 잃기 시작하고 자포자기해 버리면 이미 그 사람의 인성이 서서히 황폐해져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의 본인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자포자기해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국선 변론을 의무적으로 맡게 되는데, 그때가면 반드시 소년범들을 변론을 하게 되는데, 십중팔구가 아니고 백중구십구가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에 대한 희망, 나도 열심히 하면 잘살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직장 다니면 노후에는 내 저축으로 감당을 하든 국가의 보장에 의한 것이든 우리가 잘살 수 있다 이런 안도감이 있을 때 사람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남이 싫어하는 일 하지 않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모범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우리 사회 경쟁에서 아주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 경쟁하고 성공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의 책임질 사유 또는 본인이 책임 없는

사유로 해서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처음부터 경쟁 조건이 안 되는 사람에게
는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끊임없이 경쟁의 대열 속에 다시
복귀시켜 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 트랙에서 이탈된 사람은 다시 트랙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실업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취업 교육을 시켜 줍니다. 아무도 교육을 시켜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직장으로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열심히 시켜 주면 금방 직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의 예이지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직장 알선도 하고 이런 노력들
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사회지출 GDP대비 8.6%… 일본은 한국의 두 배

이런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우리가 합해서 복지 지출, 사회 복
지 지출 또는 공공 사회 지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공 사회
지출을 하는 그 사회가, 정부가 공공 사회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흔히들 우파적 정부다 또는 좌파적 정부다 또는 시장주의 정부다 또는 사
회주의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면 우
리가 2005년도에 그 비용을 GDP 대비 8.6%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
습니다. GDP, 국민총생산 대비 약 8.6%를 정부가 그 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재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오늘 보
고한 이와 같은 데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미국이 그와 같은 데 대해서 보장이 아주 낮은 국가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대개 15%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두 배 조금
못되는 것이지요. 일본은 완전히 우리 두 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
본이 서구 사회에서는 서구 일반의 3분의 2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60내지
70% 정도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을 복지 수준이 좀 낮은 국가로 이러
게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보통 그 비율이 22, 3% 그러

니까 우리의 한 세대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유럽의 아주 높은 나라는 뭐 훨씬 더 높습시다라는 OECD 평균을 지금 23%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국가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옛날에 서구의 복지비용 수준에서 많이 깎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복지비용이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비, 인적자원 육성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건강하게 키워야 훌륭한 인재가 된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훌륭한 인재가 된다. 교육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 갈 수 있게 언제든지 직장으로 복귀시켜 줘야 건강한 국민이 되고 건전한 국민이 된다는 이런 전제 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제도와 개인의 그 역량을 합쳐서 노후가 적어도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장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회가 매우 안정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많은 성취동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의 사회복지 지출이 미국, 일본의 절반이고 유럽 평균의 3분의 1이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걸 가지고, 이 비율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좌우정부라고, 좌파정부, 우파정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의 우파정부가 되는 것이지요. 숫자로만 계산하면요. 그리고 한참 왼쪽으로 한참 달려가야 미국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달려가면 일본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의 우파정부”

그런데 그 좌로 한참 가면 유럽이 있는데 이제 국가의 색깔을 분류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은 전혀 좌파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작은 정부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할 일을 다 하는 정부, 국민에게 책임을 다 하는 정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장의 경쟁에서 개인도 국가도 기업도 다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충분히 하고 있느냐,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 중에서 지금도 경제사업비에 투자하는 돈이 약 20% 됩니다. 그 이전에 30% 됐던 때도 있었죠. 경제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20% 정도 되는데 미국은 지금 9%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돈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시장의 활성화, 시장에 장애가 되는 모든 제도들은 다 뜯어고쳐서 시장에서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자유 시장 경제를 우리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할 일은 다 하고 있으니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초등학교 학생 교육을 시장이 어떻게 시켜줍니까? 장애인 건강을 시장이 어떻게 돌봐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도가 나는 것은 본인 책임만으로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화학 공업 시대로 들어가면 경공업에서는 부도가 나게 돼 있습니다. 경공업에 취업해서 일하던 사람이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합판공장은 그때 잘되는 회사이니까 들어갔는데 중화학공업 시대가 되니까 합판공장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본인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화학 공업에 다시 취직할 수 있게 용접도 다시 배워주고 선반도 다시 배워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이걸 국가가 하고, 그 사람한테 세금 받고요, 그 사람이 취직해서 다시 돌아가면 또 세금을 받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재정대비 복지예산 참여정부 들어 8% 증가...재정 구조조정 통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제분야의 약 20% 정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에 우리 정부예산의 20%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출, 정부예산의 20%가 사회분야, 복지분야의 예산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약 8% 정도 늘려서 28% 까지 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8% 하나까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산 1% 갖고 치열하게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8% 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뭐하는 정부냐 얘기하면 저는 이것으로 얘기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정부다. 그러나 시장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 없다. 착실하게 다 했습니다. 원칙대로 다 했습니다. 했고 새로이 정부의 책임, 사회적 정책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지방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에 우리가 보통 교부금을 교부를 하는데요, 그 교부금을 지방에 기준을 가지고 주는데 그전에는 경제사업 비중을 36%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 지표를 31%에서 36%로 올렸습니다. 이걸 아까 예산처 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를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에서 있어서도 이전 재정의 비중,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돈 주는 비율을 복지 중심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 활동을 모든 분야에서 다 평가해서 공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지시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해 주면 국민들이 보고 우리 지역의 행정에는 소위 복지를 얼마만큼 중요시 하고 있구나, 환

경을 얼마만큼 중요시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보고 판단하시라고, 이제 자료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중앙정부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행정을 바꾸어나가는 것

각 지방에서 지방의 시민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요구하는 대로 후보들은 선거 때 공약을 하게 됩니다. 후보들이 진보적 후보, 보수적 후보가 특별히 따로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선 선거 때는 항상 요구하는 것을 공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것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행정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 그 점은 우리 노인 세력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노인 세력들이 지방자치 후보들에게 여기 다리 놓느냐, 여기 개방하느냐, 뭐 무슨 아파트 짓느냐, 이거 물으면 후보는 아파트를 공약 할 것이고, 복지, 환경, 문화를 질문하면 후보들은 그쪽으로 공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노인들의 표가 무서우니까요. 그렇습니다. 대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8%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른바 재정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복지비용을 늘려 왔습니다. 재정을 이를 떼면 경제비용 투자를 복지 투자로 옮긴 것이지요. 사람의 건강에 대한 투자는 소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것을 사회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투자를 사회투자로 이렇게 옮겨서 했는데 예산 구조조정을 그 동안에 해 온 것입니다. 왔는데 이 구조조정은 계속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남는 것은 아닙니다. 갈비는 살 한번 뜯어 먹고 나면 그다음에 살이 계속 돌아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조세투명성,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저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세 세금 안 내던 사람들 세원을 최대 포착하고 발굴해서 그래서 세금이 조금 더 건힙니다. 건히는데, 요새 TV 보면 맨날 정부가 세금 쥐어짜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것은 다수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복지혜택이라든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고 또한 조세의 공평성이죠. 공평하게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다 따라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은 세금 면세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 한다는 것이죠.

탈세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데 면세점 이하에 있는 분들이나 급여를 작게 받는 분들이 세금을 아주 적게 내는 분들이 덩달아서 불안해하고 정부에 대해서 낮은 평가라든지 세금 쥐어짜는 정부라는 이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책이 지금까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든 그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2010년까지는 특별히 새로운 재원 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린 정책들을 대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보고 드린 정책 앞으로 차질 없이 갈 것”

지금은 5년 단위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합니다.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임기 1년 남은 대통령, 정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을 내놓았습니까마는 그러나 실제로 재정계획은 앞으로 5년 계획을 우리가 내다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보고 드린 정책은 차질 없이 갈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이것을 흘랑 뒤집지 않는 이상 갈 것입니다. 다음 어느 정부라도 이것이 우리가 높은 복지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 깎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느 쪽에서 더 높게 나오느

나 하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노인복지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관심을 계속 표명해 주시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국가적 보호는 하고 넘어 졌을 때 다시 일어 날 수 있게 약간 받쳐주는 수준, 자기 힘으로 걸어가라 이게 맞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 당신 힘으로 걸어가라. 그러나 한꺼번에 무슨 비정상적인 일이 생겨서 넘어졌을 때 그럴 때 다시 일어서서 부축하고, 함께 가고, 또 내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이 쓰러 졌을 때 또 내가 세금내서 다른 사람을 부축해서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공동체의 이상이고 정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을 좀 함께 지켜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내년 예산까지 저희가 편성 합니다. 최대한 이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굳히겠습니다마는 국민여러분들도 관심을 계속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을 좀 지켜 주시려는 노력을 하면 이 정책은 더욱더 탄탄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부모를 모시는 점이라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섬길 줄 알아서 짐승과 다르다. 그렇게 얘기 한다면 사람이 한 번 더 성숙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나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를 함께 모셔가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